

수능영어 이의제기 줄 있는데...교육부는?

평가원에 수능 영어 192건 이의제기 “음질 공개져 못 들었다” 불만 속출 교육부 “교육청 차원서 설명 있어야”

교육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 음질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하

로는 일부 음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듣기 평가는 원활하게 잘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

원(평가원)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10시45분 기준 192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이 중 다수가 시험장 방송 음질이 좋지 않아 듣기평가 문제풀이에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이 이의신청 내용들을 알고 있다며 “듣기평가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설명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올해 수능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를 접수한다. 접수된 이의들은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오후 5시 발표될 최종 정답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그(이의심사) 기간 동안에 평가원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



초가지붕에 올릴 이영 엮기

절기상 소설(小雪)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관계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영 엮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만 야생 흑두루미 폐사체서 'H5형 AI 항원' 잇따라 검출돼

순천만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돼 긴급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해룡면과 18일 안평동 등 순천만에서 서식하는 흑두루미 6마리 폐사체에서 각각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확인 여부는 3~5일 소요된다. 전남도는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검출지점과 농업단지, 대대포구-안평동지간 출입을 통제하고 집중 소독을 했다. 다행히 검출지점으로 부터 반경 500m~1km 내에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장이 없다. 반경 10km 이내에 4개 농장에서 닭과 메추리 21만1000마리를 사육 중인 가운데 방역지역으로 정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방역지역 내 4개 가금농장에 대해선 이동제한, 일제소독을 실시했으며 임상예찰에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순천만에선 지난 13일 발견된 흑두루미 폐사체에서 나온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17일 H5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소방, 소방발전위원회 창립행사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17일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발전위원회' 창립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무안소방,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무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최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 남부소방, 가금 대비 소방용수 확보 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3일간 가금 대비 소방용수 확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담양경찰, 고령운전자 특별 안전교육 실시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에서는 지난 17일 고령 운전자 69명을 대상으로 적성검사 서류 접수 및 고령 운전자 특별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경찰,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전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수능 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수능 전·후 선제적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주지방보훈청 광주 전남북 해외 파병용사 위로연 개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은 최근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에서 광주·전남·전북에 거주하는 해외 파병용사와 기관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파병용사 위로연'을 개최했다.

김재환기자

마스크 5만원 판매·환불거절 40대 약사, 혐의 인정

환불 요청 손님 먹살 잡는 등 폭행 및 흥기로 협박

마스크와 피로회복제 등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환불요청을 거절한 혐의를 받는 40대 약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현)은 21일 오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손님들이 예상한 가격이 있어 가격 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를 건네준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라며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5만원을 편취했다”라고 A씨

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가게 앞에 차를 세워뒀다며 행인들을 폭행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먹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한 손님이 환불을 요청하자 흥기로 상자를 찌르기도 했다”라며 “약국 개설 등록 전부터 의약품을 판매했고 세종시 보건소와 한 이비인후과에서 각각 3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

으며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고 현재 입원 치료 등을 통해 증세가 완화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본래 다음 달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A씨 측이 공탁할 기간을 달라고 요청, 이를 고려해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50분에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열어 두통약과 소화제, 감기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손님이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환불 요청을 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범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순천=김승호기자

‘1분 47초 만에’ 금은방 털고 달아난 일당 3명 구속...1000만원 상당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 중 3명이 구속됐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공구로 부순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검거된 20대 남성 A·B·C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 전후 차량을 운전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특수절도 방조)를 받는 또래 D·E씨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 17분께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금은방 침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금목걸이·반지·팔찌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출입문·진열장을 차례로 부순 뒤 1분 47초 만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손님을 가장해 이날 11~12일 사이 2차례에 걸쳐 금은방에 들러 가게 내부 구조와 값비싼 귀금속의 보관 위치 등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진열장에 놓인 20돈 짜리 금목걸이를 직접 착용하는 등 훔칠 물건을 미리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노렸던 금목걸이가 금고 안에 있어 훔칠 수 없게 되자 진열장 내 귀금속을 무작정 쓸어 담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타고 다닌 승용차의 행방을 쫓아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형택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피고인 측, 박수홍씨 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인정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자신들의 첫 재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점은 인정하나 하위 직원 급여 부분은 부인한다”며 “메디아블엔터테인먼트(박수홍씨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은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씨 개인 소유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메디아블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1인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생명보험은 납입금액만 14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

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지난 9월 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박수홍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인 변호사는 박씨 부부 측은 합의의 시도도 없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날 공소사실 부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 문제는 너무나 명백해서 혐의를 부인하면 양형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최이슬기자